

전남 의대 선결과제 ‘목포대·순천대 통합’ 연내 판가름

교육부, 18일까지 9차례 통합 심사

양 대학, 교명 확정후 신청서 제출

‘유연한 통합’에 긍정 시그널 기대 ↑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선결과제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대학 통합이 이달 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대학 통합 추진을 공식 합의한 목포대·순천대는 같은 해 12월 말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며 의대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9월엔 대학 특성화와 거버넌스 체계 등 주요 사항을 보완한 대학통합수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며 연내 대학 통합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 통합과 관련,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심사 위원회는 9월 이후 현재까지 7차례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달 4일에는 순천대에서 7차 회의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고 교수평의회, 총동문회, 학생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오는 11일 8차 회의, 18일 9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합대학 교명 선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모를 통해 10개 후보를 추려낸 양 대학은 대학구성원 투표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을 선정한 뒤, 확정된 교명으로 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글로벌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정부의 ‘도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 사례인 데다, 양 대학이 요구해온 ‘유연한 통합’ 모델에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통합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한 통합은 대학이 법적으로 통합되지만 실제 운영은 각 캠퍼스의 자율성·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통합대학 거버넌스로 1명의 통합 총장을 선정하되 캠퍼스 총장직을 유지, 양 대학의 지위를 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대학 통합을 거쳐 내년 초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남 의대 몫 정원 배정,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예비 평가 인증 신청 등 전남 의대 개교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권 국립의대가 2027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양 대학과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전남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식 향유의 장을 펼친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이 9일 오후 남구 어반브룩에서 열려 본사 임원진과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매일신문 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 성료

지역 ‘교육 플랫폼’ 자리매김

내년 3월 ‘13기 아카데미’ 개강

광주·전남지역 경영자들과 각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온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이 9일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숙 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원우회장, 전현수 부회장과 원우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수료의 의미를 더했다. 12기를 대표해 김미경 원우에게 졸업장을 수여했고 공로패 7명과 표창장 7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전

국 최고의 강사진을 초청한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CEO와 지역리더들에게 지식 향유의 기회와 함께 네트워크 확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며 “광주매일신문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앞으로도 아카데미 참여 원우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숙 12기 원우회장은 “각자의 바쁜 경영 환경 속에서도 1년간 배움과 성장을 위해 참여한다 양한 업종의 리더들이 실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큰 자산이 됐다”며 “이번 수료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각 기업의 발전과 리더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료식에 이어 열린 송년음악회에서는 ‘리디안 팩토리’의 재즈공연이 진행돼 원우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월25일 개강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총 16강좌로 구성돼 경영·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강의를 선보이며 지역 교육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영구 방송인을 비롯해 최광현 한세대 심리상담대학원 교수, 헤민 스님, 김영미 산악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 정상급 강사진이 참여해 강의의 깊이를 더했다.

원우들은 강연 외에도 작은 음악회, 친선 골프대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 친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한편, 내년 3월 중순 개강 예정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지역 리더와 CEO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초청해 운영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통합대학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로”

전남 국회의원들 제안…귀추 주목

“미래 100년 준비 국가적 프로젝트”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은 “전남 출신으로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IT 시대를 이끌어온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은 통합 국립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부

합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순천·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상징성 ▲정보고속도로 구축으로 AI·디지털 시대 기반을 마련한 미래전략성 등을 교명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조지 워싱턴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메디슨대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도자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국회의원들은 “전남 통합 국립대학은 단순한 대학 통합이 아니라 전남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교명 제안은 공모 심사 투표 교육부 확정이라는 공식 절차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라는 공적 의견 제시”라며 “어떠한 압력이나 개입도 없을 것이며 양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과 교육부의 심의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대학 교명 논의는 향후 양 대학 구성원의견 수렴과 공모 절차를 통해 공식 결정된다. /김진수 기자

Today

‘국가기관’ 유치 지역구 미래 지도비했다 4면

이론자 전면번호시험사업 참여율 ‘저조’ 6면

2026수능 실채점…내 점수로 어느 대학? 7면

금호타이어, 함평 빛그린산단에 新공장 만든다

올해안 착공 2028년 1월 준공 목표

금호타이어㈜가 6천609억원을 투입,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에 스마트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금호타이어(주)와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6천60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금호타이어(주) 정일택 대표이사·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주)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로 6천609억원을 투입, 함평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함평 신공장은 올해 안에 착공해 2028년 1월 준

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준공 이후 연간 530만본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중장기적으로 2단계 투자를 통해 광주공장의 전면 이전을 계획 중이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재정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은 전남 제조업 혁신을 이끌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한 줄의 해답, 대한민국을 잇다!

대한민국 미래에너지를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국전력이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한국전력

1.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 : 재생에너지
2.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 : 지역균형발전
3. 멀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 : 초고압직류송전
4. AI시대 핵심 국가첨단산업 중 하나 : 반도체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잇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